

대구화교협회(大邱華僑協會)와 대구화교소학교(大邱華僑小學校) 고찰

Review of Chinese Resedent's Association and Chinese Elementary School in Daegu



추 승 연 / 경북대 건축토목공학부 조교수
Choo, Seung-Yeon / Assistant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oo@knu.ac.kr

1. 서론

대구 근대건축의 형성 배경의 첫 번째 요인은 기독교의 전래와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의 기독교는 1827년경부터 수용되기 시작하여 한일합방 후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지만 이후 1930년대부터는 일제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하여 점차 침체하게 된다. 둘째로는 일제의 경제침략과 식민통치를 들 수 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 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3년부터였으나,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경부선 철도공사가 착공된 1903년경부터라 할 수 있다. 1912년경부터는 일제는 대구를 유통거점으로 정하였으며, 1937년 이후에는 철강, 섬유 등 공업도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술자의 도래와 신 재료의 사용이다. 개항 이후 조선의 전통적인 건축생산체제는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대부분 외국인에 의해 설계·시공되었다. 대구에 서구식 벽돌을 포함한 근대적 건축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1년부터였다.¹⁾

대구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은 크게 개항 이후의 태동기, 한일합방(1910)이후의 형성기, 1920년대 후반부터의 발전기로 나누어진다. 이 중 대구화교협회와 대구화교소학교는 현존하는 대구 근대건축물 가운데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으며 건축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구화교협회와 대구화교소학교에 대한 건축적 사항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2. 연혁 및 개요

2.1 대구지역 화교의 유입

대구지역에 화교가 이주한 것에 관한 기록은 조선총독부 문헌이 유일하다.

「대구에 처음으로 지나인支那人(중국인)이 내주來住한 것은 명치明治 38년경이었다. 당시 1, 2호의 지나支那상이 재유在留하고 있었지만, 그후 명치明治42년에 이르기까지의 재유在留 지나인支那人의 인구는 상세하지 않다.」²⁾

명치 38년은 1905년에 해당하는 해이므로 화교의 대구 이주는 1905년경에 이루어졌다는 말이 된다. 대구는 17세기부터 경상도의 행정중심지일 뿐 아니라 조선의 상업 중심도시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경부철도의 부설은 부산과 서울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좁혀 대구의 상업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고 일본인도 대거 이주하였으며 화교도 이런 경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화교 인구의 대구 유입은 빠른 인구증가와 화교경제의 발전을 이루었던 제1기(1905년~1930년), 여러 정치적 사건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쇠퇴되었던 제2기(1931년~1945년), 화교가 미군정기 연합국민민으로 우대를 받아 다시 경제력을 확대하였던 제3기(1945년~1955년), 중국대륙과의 교류 단절로 인한 대구 화교의 안정기라 할 수 있었던 제4기(1955년~1970년), 대구화교의 이동기라 할 수 있는 제5기(1970년~2005년)로 나누어진다.

2)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1924 <朝鮮に於ける支那人> 《조사자료調査資料》7, p.131

3)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대구사학 80권, pp.71-102, 2005

1)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04. 09에서 참조

표 1. 대구 화교 유입 제1기 현존 건축물

건축명	건축연대	건축구조	시공자
계산성당	1902	벽돌조적조	중국인
성유스티노신학대학	1913-1914	벽돌조적조2층	강의관
샬트르성바로수녀원	1915	벽돌조적조3층 지하1층	강의관
성모당	1918	벽돌조적조	강의관
샬트르성바로수녀원성당	1926	벽돌조적조	강의관
샬트르성바로수녀원	1927	벽돌조적조	강의관
스윗츠(Switzer)주택	1910	벽돌조적조2층지하1층	중국인,일본인
챌니스(Chamness)주택	1910	벽돌조적조2층지하1층	중국인,일본인
블레이(Blair)주택	1910	벽돌조적조2층지하1층	중국인,일본인
아담스(Adams)관	1908	벽돌조적조2층지하1층	중국인,일본인
맥퍼슨(Mcpherson)관	1913	벽돌조적조	중국인,일본인
대구화교협회	1929	벽돌조적조2층	모문금

대구의 화교 주 근거지로는 종로, 남성로, 장관동, 남산동 등이며 근대기의 화교 시공 건축물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제1기의 건축물은 표1과 같다.

이 중 대구화교협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鍾路二街)에 있는 근대 건축물이다. 2006년 6월 19일 등록문화재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2.2 대구화교협회 및 화교소학교의 연혁

1929년⁴⁾에 지어진 대구화교협회는 당시 대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국 건축가 모문금(慕文錦)⁵⁾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2층 서양식 주택이다.

대구 화교들이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1921년 대구 화상동향회가 설립되고 해방후인 1948년경 남한화교자치대구공소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가 1960년 다시 대구화교협회로 바뀌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무렵 대구의 화교들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 1940년 후반 서병국의 저택 일부를 매입,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에는 대구화교협회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대구화교소학교는 1943년에 설립되어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화교협회 건너편 2층 건물에 있다. 당시 화교의 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모문금이 모금운동을 벌이고 개인 명의로 기부하는 등 힘쓴 결과 화상공회⁶⁾건물에서 마침내 개교했다. 당시에는 교실은 3칸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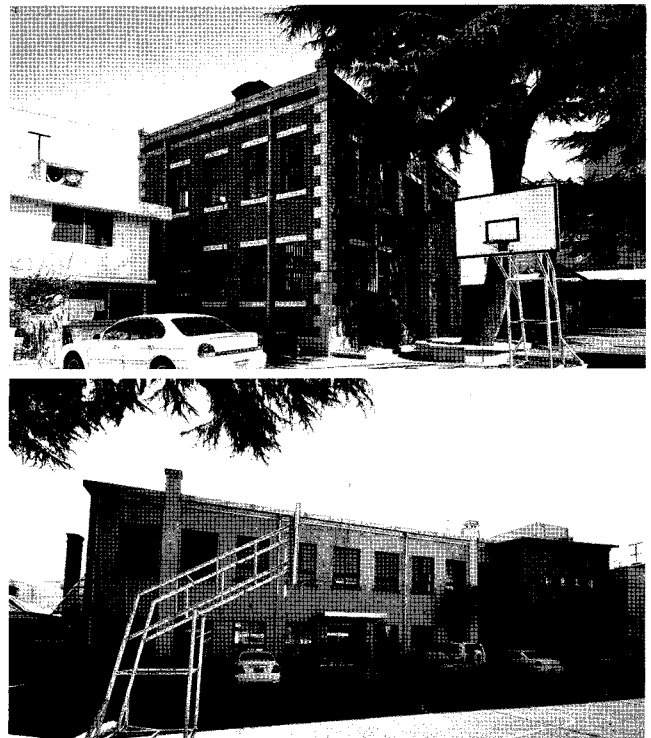


그림 1. 대구화교협회 전경(상), 대구화교소학교 전경(하)

는데, 한 칸은 교무실이고 나머지 두 칸은 교실이었던 한 교실마다 3개 반을 운영하였다. 마당이 작아서 학생들은 특별한 체육활동을 대신하여 반을 나누어 놀이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화교 인구가 더 늘어나자 새로운 신축교사가 필요해져, 1948년 당시 교장이었던 모문금이 또다시 모금운동을 벌여 대구·경북지역을 위시하여 서울, 인천, 마산, 군산 등지의 화교로부터 총 568만 3400원을

4)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설립연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건축연도가 다르나 여기서는 문화재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5) 1913년 청년 모문금은 자신의 건축 스승이자 동업자인 강의관(姜義寬)과 함께 대구에 첫발을 디뎠으며 기술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강의관과 함께 교구청 주교관, 성바로수녀원, 성모당 등 종교 건축물들을 잇따라 짓게 된다. 두 사람이 만든 건축회사 쌍흥호(雙興號)는 성장을 거듭해 1920년대 조선의 2대 화교 건축회사로 부상했다.

6) 대구의 화상공회는 1921년 화상동향회 조직에서 시작되며, 화상공회는 회관의 부지로 현 종로호텔 주차장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은 1947년 처분하고 그 돈과 모문금 등의 화상의 모금으로 현재의 대구화교협회 건물을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두어 현 화교소학교부지와 건물을 550만원에 구입하였다. 1950년대 이후 대구화교소학교는 서울, 인천, 부산화교소학교와 함께 전국 4대 화교소학교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현재에는 2002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로 화교 자녀와 한국인 자녀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한국인 자녀의 입학도 허용된다.⁷⁾

2.3 대구화교협회의 건축적 개요

대구화교협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1동이고, 지하1층, 지상2층의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진 붉은벽돌조의 서양식 주택이다.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의 균형미를 이룬다. 수려한 미관을 자랑하는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표 2. 대구화교협회 개요

명칭	대구화교협회(大邱華僑協會)
분류	등록문화재 / 기타/ 업무시설/
규모	1동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대지면적 390.1㎡ 건축면적 121.49㎡ 연면적 242.98㎡ (지하층 미포함)
구조/양식	벽돌조적조/모임지붕
소재지	대구 중구 남일동 142
시대	일제강점기
보존상태	양호
문화재	등록문화재 제252호 (등록일 : 2006.06.19)

대구화교소학교는 대구화교협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동으로 지상2층 규모로 지어져 있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표 3. 대구화교소학교 개요

명칭	대구화교소학교(大邱華僑小學校)
분류	교육시설 (2002년 교육부 인가)
규모	1동, 지상2층
면적	연면적 약 626.4㎡
구조/양식	철근콘크리트구조
소재지	대구 중구 종로2가 31
보존상태	양호

3. 대구화교협회 및 화교소학교의 구조와 특징

3.1 배치 및 평면

종로에서 화교들이 지은 건물은 대구화교협회뿐만 아니라, 구 종로호텔의 전신인 군방각, 구세군교회, 화교성당,

7) 사단법인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신택리지, 북랜드, 2007.03에서 참조

복해반점 등 많으며 일본건축물과는 다르게 주로 큰 창문과 단순한 선을 살린 주거와 상업용 병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화교들의 개척지라 할 수 있다.⁸⁾

대구시 종로2가 길을 건다 보면 “한국대구화교소학(韓國大邱華僑小學)”이라고 적혀있는 좁은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푸른 히말라야시와 함께 붉은 벽돌로 된 2층 건축물이 대구화교협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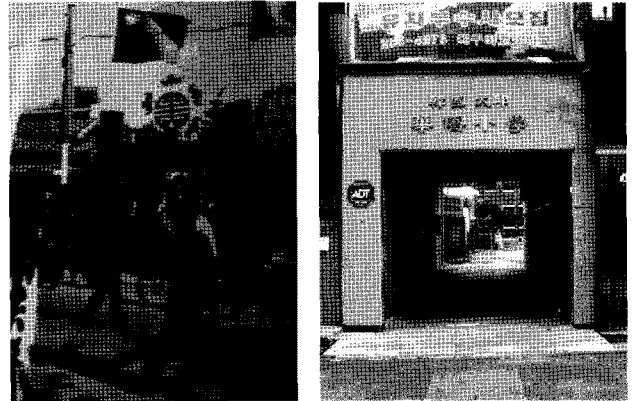


그림 2. 대구화교협회 출입구 모습 1940년경(좌), 2010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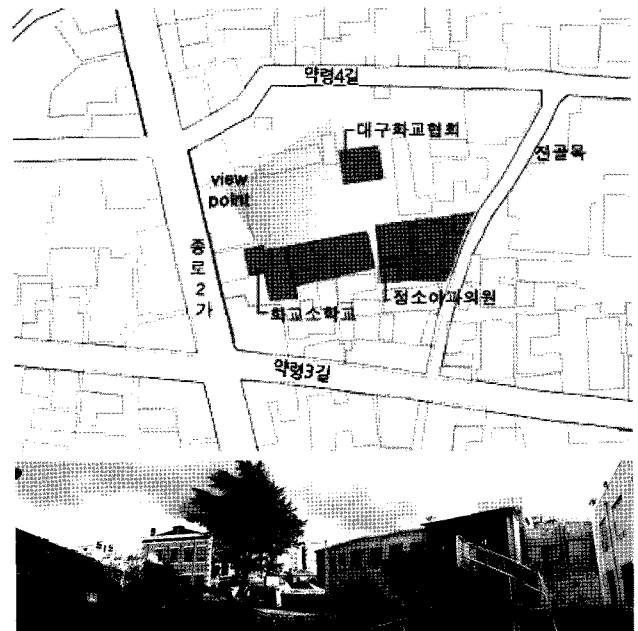


그림 3. 대구화교협회 배치도 및 전경

대구화교협회는 크기가 정면 12m, 측면 9.4m 정도의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의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1.6m 가량의 넓지 않은 중복도를 이용하여 평면은 남쪽으로 나 있는 주출입구인 현관을 중심으로 하여 외관과 마찬가지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1,2층의 각 실들은 가운데 복

8) 사단법인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신택리지, 북랜드, 2007.03
9) 화교협회 소장

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되어 있고, 정면 중앙의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계단은 1층에서 지붕에 설치된 다락방까지 이어진다. 현재 1층은 주로 사무실로, 2층은 주로 소품실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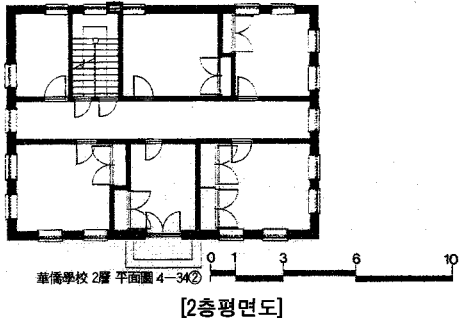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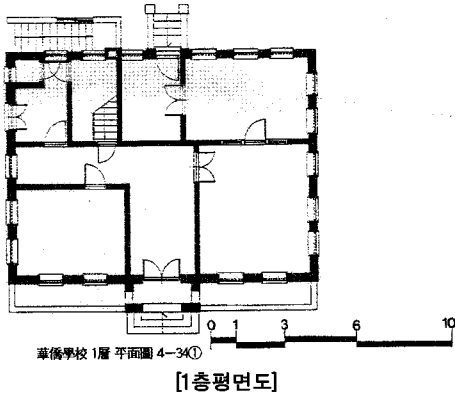


그림 4. 대구화교협회 평면도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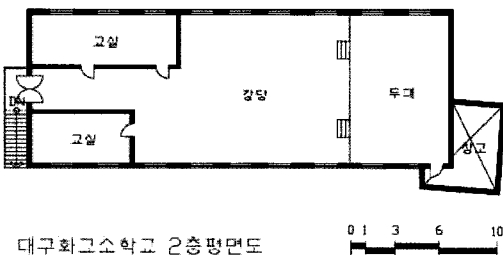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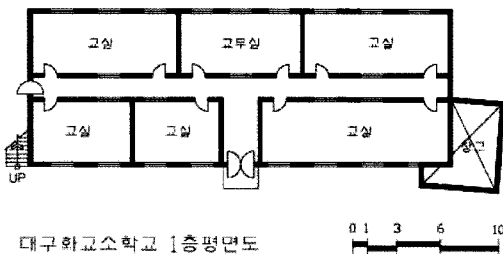


그림 5. 대구화교소학교 평면도

대구화교소학교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중복지도형이며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정

10) 김일진, 정진수, 윤재용,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01

면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교무실이 있고, 그 양측으로 5개의 교실이 있다. 1층 좌측에 있는 출입문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입구로 정면에 있는 문만 사용되고 있다. 복도의 폭은 대구화교협회와 비슷하지만, 교실의 규모는 조금 더 큰 편이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은 좌측에 있는 외부계단뿐이며, 2층은 강당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출입구 좌, 우측으로 교실이 만들어져 있다. 참고로는 2층 강당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2 입면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 위에 붉은벽돌을 가장 튼튼한 쌓기 방식인 영식쌓기 방식으로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으며 벽 모서리에는 화광석 다듬돌을 컷돌 쌓기하고, 벽 상부에는 화강석 돌림띠를, 처마에는 화강석을 패러핏 모양으로 설치하여 4면으로 돌렸다. 주출입구처럼 시각적 인지성이 높을 필요가 있는 곳과 모서리와 상하인방 등 구조미를 강조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패러핏을 석재로 처리하여 단아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다. 정남 중앙의 현관은 2개의 화강석 석재기둥에 주두 장식을 하고 그 위에 키 스톤을 둔 반원 아치를 쌓았으며, 지붕위에는 화강석 동자기둥을 세워 난간을 완성하였다(그림8(좌)). 대구의 주거건축에서 창에 사용된 아치 형태는 근대건축의 태동기에 해당하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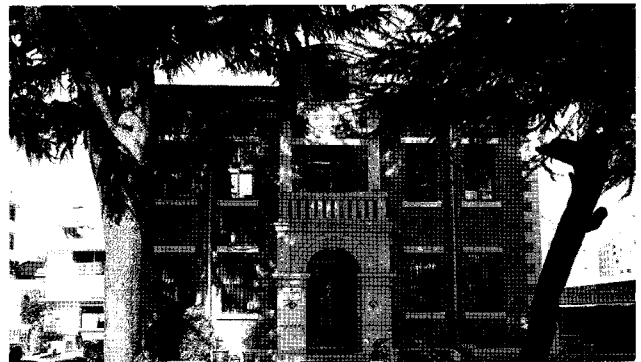


그림 6. 대구화교협회 남측면(상), 서측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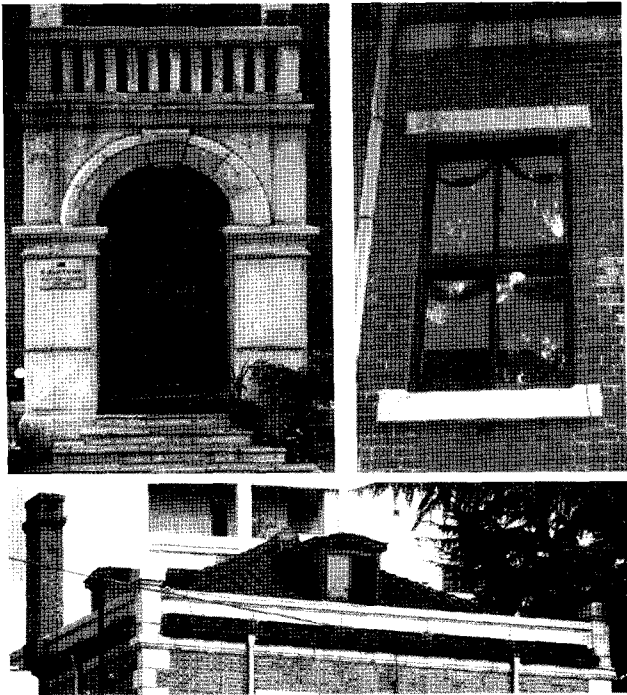


그림 7. 대구화교협회 주출입구(좌), 창문(우), 대구화교협회 지붕 페러핏(하)

1기의 경우 결원아치가 75%, 형성기에 해당하는 제2기와 발전기에 해당하는 제3기의 경우에는 평아치가 80%, 83%로 많아졌다. 아치는 조적조의 구조적인 면보다 형태적 의미로 취급되었다.¹¹⁾ 대구화교협회의 창문은 평아치형으로 상·하인방에 화강석 다듬돌을 돌출시키고 원래는 목재 오르내리창이었으나, 1990년 알루미늄 셋시창으로 교체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붕 끝 부분을 페러핏으로 감춰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달리 이 건물의 지붕은 그림8(하)와 같이 페러핏을 뚫고 밖으로 나와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붕 끝부분을 페러핏 내부에 두는 경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방수문제이다. 그런데 이 건물처럼 처리하면 방수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장점도 있다.

대구화교소학교는 장방형의 입면을 가지고 있으며, 북측면이 정면이다. 가운데에 있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규칙적으로 창문이 배열되어 있으며 오른쪽은 벽돌로 되어있는 창고가 돌출되어 있다.

3.3 구조 및 내부공간

대구화교협회의 내부 복도는 1.6m정도의 좁은 폭으로 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목재 양판문으로 쌍여닫이와 외여닫이로 하였다. 내부 바닥은 몰탈 마감이고, 천정은 현치

(haunch)를 둔 콘크리트보를 격자형으로 설치하여 몰딩하였으며 그림10(상), 갓돌레에는 5단의 몰딩으로 장식하여 벽과 함께 회반죽 마감하였다. 지하에는 각종 배관들이 노출되어 있고 2층 남쪽실에는 목재로 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쌍대공 트리스형식으로 지붕가구를 형성하여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지붕가구는 인(人)자모 위에 중도리를 걸고 그 위에는 서까래 없이 지붕널을 얹어(그림10(하)), 모임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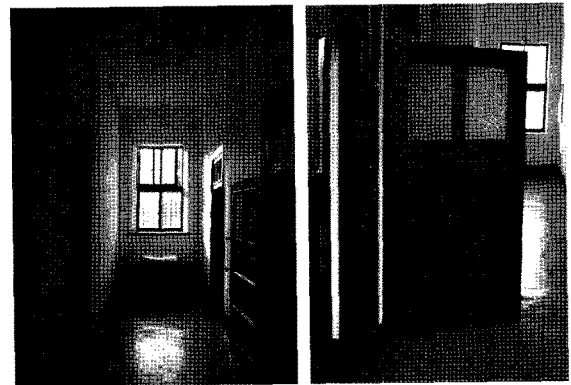


그림 8. 대구화교협회 2층내부복도(좌), 내부출입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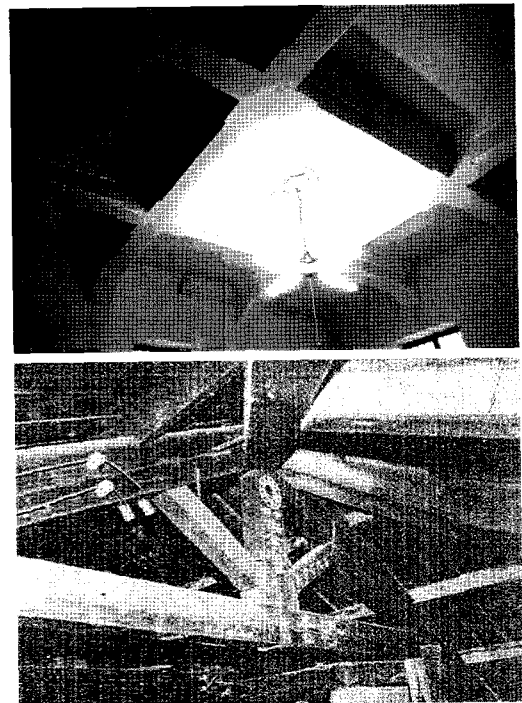


그림 9. 대구화교협회 1층내부천정(상), 지붕가구(하)

지붕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측창을 달아 최고 높이 2.4m, 최저 1.1m의 지붕층 다락방이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 뒤쪽에 2층 다락 바닥으로부터 약 4m 높이의 약간 돌출된 굴뚝이 있다.¹²⁾ 내부 계단은 폭 1m 정도의 목재 계

11) 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 형성과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02

12) 김주야, 대구근대건축물오픈하우스, 대구광역시중구, 2010.10



그림 10. 대구화교협회 소품실(상), 내부계단(하)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징두리벽과 계단 천정을 긴 널판재로 마감하였다. 난간기둥과 두겹은 섬세하게 장식을 하였다.

대구화교소학교 역시 대구화교협회와 비슷한 폭의 내부 복도를 가지고 있으며 교실의 규모는 약간 더 큰 편이다. 폭은 일정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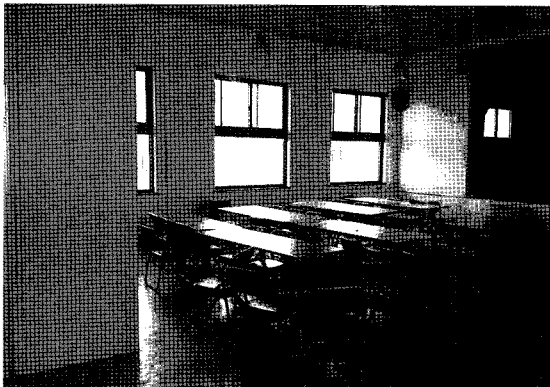


그림 11. 대구화교소학교 2층강당(상), 1층복도(하,좌), 1층교실(하,우)

다양한 교실이 만들어져 있으며 2층의 강당은 전체적으로 아담한 크기이며 무대 뒤편에 창고로 통하는 문이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4. 결론

다른 지역의 화교와 비교하여 대구 화교만의 독특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많은 작품이 대구지역에 남아있으며, 이러한 작품은 현재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 대구화교협회 건물은 평면과 외관 구성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하에 한국인의 자본과 중국인의 기술력, 그리고 서양 건축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대구화교소학교는 인천화교소학교(1902), 한성화교소학교(1910), 부산화교소학교(1912), 영등포화교소학교(1935)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설립된 화교소학교로써, 1940년대 초 대구의 화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모문금이 모금활동을 펼쳐 설립되었다. 현 소학교 건물은 그 이후 중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롭게 사들이게 된 건물이며, 이 새 건물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전이었다. 1950년 4월 4일이었다고 한다. 대구화교소학교는 자녀들의 학교교육을 위한 화교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던 시설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일진, 정진수, 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 보고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01
2. 대구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대구광역시, 2004.09
3. 문화재청, 근대 문화유산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보고서, 드림인쇄, 2001.03
4. 사단법인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신택리지, 북랜드, 2007.03
5. 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 형성과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02
6.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 (1905~1955년), 대구사학 80권, pp.71-102, 2005